

# 전남 7곳에 '열린 관광지' 조성

### '함평 3·해남 2·영광 2곳' 전국 최대 선정... 접근성 높여 치유여행 도모 도, 국비 18억여원 확보 편의시설 집중 조성... 7년간 관광지 15곳 개선

전남도가 함평·해남·영광 등의 대표적인 관광지 7곳을 누구나 편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한다.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을 위한 안내 및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전국 최다인 7개소가 선정돼 국비 1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관광 활동을 보장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객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내판 설치, 이동로 경사 개선,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 설치 등이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41개 관광지가 이번 공모에 응모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9개 지자체 2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해남 2개소, 함평 3개소, 영광 2개소 등 전남 7개소를 비롯해 경남 3개소(사천), 강원 2개소(영월), 경기 2개소(시흥), 대전 2개소, 충남 2개소(공주), 전북 2개소(임실)다.

전남지역 선정 관광지는 함평의 엑스포공원·돌머리해수욕장·자연생태공원, 해남의 우수영관광

자·송도해수욕장, 영광의 불갑사 관광지·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의 전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와 힐링의 열린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장애인 등 기존 약자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등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명소를 모두에게 열린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장흥 우드랜드, 여수 오동도 등 12개 관광지를 개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 전남도, 5~18일 전 가금농장 일제검사... 20일까지 집중 소독

전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조치와 고위험지역 위험통제, 가금농장 검사 확대 등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15일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고흥, 나주에서 산발적으로 5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오염도가 전년보다 3.6배 높고 바이러스 변이가 심한 상황이라서 도내 야생조류 유입이 가장 많아지는 12월 발생 위험성이 최고로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신고 또는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준한 정밀검사 및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의사환축 확인 농장만 정밀검사를 하던 체계에서 즉시 1km 내 오리농장을 동시에 정밀검사하고, H5형 항원이 확인되면 1km 내 오리농장을 동시에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해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한다.

또 나주, 영암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앙 합동방역반 4명과 도 농장점검반 10명을 가동해 고위험농장 특별 점검을 하고 소독차량 39대를 배치해 농장 주변도로와 진입로에 대해 하루에 3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감염축 조기 색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벌인다. 12월 21일까지 3주간 27일령 이상 오리농장 등 취약농장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해 방역 미흡농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해 소독차량 160대를 총동원, 농장 주변도로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도 매일 소독하는지 점검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므로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통제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이동 노동자' 공공쉼터 확대

### 시청·DJ센터 등 13개 기관 34곳 집배원·택배기사 등 이용

광주시가 집배원, 배달·택배·대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쉼터를 확대·운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이동 노동자 공공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쉼터는 시청,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기관 총 34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남광주역, 양동시장역, 농성역 등 10개 지하철 역사, 도시공사의 전일빌딩 245 등 6곳,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공공쉼터는 각 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한다. 공공쉼터는 공공기관 시설의 휴게실, 로비 등에 마련된 휴게공간을 공유해 이동 노동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가

동하고 탁자, 의자, 정수기 등도 제공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상무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달빛쉼터'를 열고 매주 쉼터영화제, 생활법률상담, 찾아가는 이동천막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쉼터가 단 한 곳 뿐이고 건물 8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폭 확대했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공공쉼터는 집배원, 배달·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강추위와 무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강풍, 강설 등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동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나주시 동강면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 매입상황을 청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공공비축미 매입계획량(시장격리곡 포함)은 비기준 26만 8천 톤으로 전국 113만 7천톤의 23.5%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전국 벼 생산량 대비 전남 벼 생산량인 19.7%보다 많은 물량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지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점검

### 전남 26만8000t 전국 23.5%... 농가경영 안정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나주 동강면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태풍,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벼를 수확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전남도는 생산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자 정부를 상대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공공비축미 매입계획량(시장격리곡 포함)은 비 기준 26만8000t으로 전국 113만

7000t의 23.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올해 전국 벼 생산량 대비 전남 벼 생산량인 19.7%보다 많은 물량이다.

이와 별도로 태풍 등 피해에 따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쌀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풍 피해벼 전량을 매입한다.

전남도의 공공비축매입은 12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5일 현재 55.5%가량 진행됐

며, 등급비율은 특등이 39.6%로 전국 평균(33.8%)보다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풍, 집중호우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고품질 벼를 생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지사는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쌀값은 80kg 기준 21만원 이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남악에서 열린 전남 농축협조합장 포럼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세계로 뚫어주는 행복전남 정책 및 농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실시간 정보제공 등 14개 과제 추진

광주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안심도시 광주만들기'를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 ▲시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등 3대 부문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 배출을 방지할 계획

이다. 또한, 도로 청소차 확충으로 자치구별 도로 청소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2023년 12월부터 전국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습식청소, 공기청정기,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중이용시설 219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최권일 기자 cki@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